



골프 김지현·농구 김선형

‘재능기부’ 국어사전에도 올라와 있지 않은 이 단어는 언젠가부터 사회 전반에 걸쳐 통용돼 신속하게 자리를 잡았다. 특정 분야에 능통한 전문가가 배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직접 노하우를 전수하는 재능기부가 더욱 뜻 깊은 이유는 함께 하는 모두에게 값진 경험이 되기 때문이다. 배우는 사람은 ‘대가(大家)’로부터 쉽게 접하지 못했던 부분을 채울 수 있고, 가르치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남에게 전하면서 전에 느끼지 못한 보람을 얻고 스스로에게는 또 다른 공부가 되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재능기부가 활성화된 곳은 스포츠다. 특히 프로와 아마추어의 구분이 명확한 종목 특성상 많은 곳에서 훈훈한 재능기부가 이뤄지고 있다. 스포츠동아는 연말을 맞아 뜻 깊은 재능기부를 펼치고 있는 스포츠 스타들을 만나봤다. 2017년 한국어자골프(KLPGA)의 대사로 떠오른 김지현(26·한화)과 남자농구 국가대표를 이끄는 가드 김선형(29·서울 SK)이 그 주인공이다.

김지현, 유소년선수 레슨 재능기부 동참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모습에 내가 감동”

김선형, 봉사활동 계기 장애우들과 인연 선행의 선순환...꿈나무 농구 클리닉까지



KLPGA '대사' 김지현이 유소년들과 함께 골프채를 잡았다. 11월 13일 천안 미죽초에서 열린 재능기부 행사에 참석해 자신의 노하우를 마음껏 전수했다. 김지현에게도, 꿈나무들에게도 뜻 깊은 하루였다(왼쪽 사진). 자숙의 봉사에서 시작한 재능기부로 이어진 SK 김선형이 지난해 8월 연고지 초·중·고 유망주를 대상으로 '모여라 No.5' 행사를 진행했다. 참가 학생들과 김선형이 기념촬영을 했다.



자숙의 봉사에서 시작한 재능기부로 이어진 SK 김선형이 지난해 8월 연고지 초·중·고 유망주를 대상으로 '모여라 No.5' 행사를 진행했다. 참가 학생들과 김선형이 기념촬영을 했다.

“내가 더 얻어갑니다” 재능나눔에 빠진 스타들

●김지현 “꿈나무 스포츠 정신에 감동했어요”

김지현은 지난달 13일 충남 천안 미죽초를 깜짝 방문해 꿈나무 선수들과 뜻 깊은 추억을 나눴다. 한국어자골프협회(KLPGA)에 동참한 것이다. 유소년골프 저변확대를 위해 프로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직접 유소년들에게 원포인트 레슨을 해주는 행사다. 이 같은 재능기부가 처음이라면 김지현은 당시 느낌을 솔직하게 회상했다. “사실 첫 만남은 당황스러웠다. 학생들이 ‘나를 보기 전까지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놓았기 때문이다. 이제 막 골프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프로선수를 직접 마주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느꼈을 듯하다”며 웃었다.

학생들의 입장이 된 김지현은 한 발 더 다가 가려고 노력했다. 기초적인 골프 지식을 가르쳐주면서도 재미를 놓치지 않으려고 꿈나무들과 눈높이를 맞췄다. 동시에 운동선수 특유의 승부욕도 발동했다. 김지현은 “수업 도중 사인 불이나 장갑 같은 상품을 걸어 참여를 유도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이 의욕으로 넘쳐나고 서로 경쟁했다. 처음엔 어려워하던 학생들이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 레슨을 쫓아왔다. 이러한 장면이 오히려 내가 감동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날의 경험은 정상급

프로선수에게도 깊은 추억으로 남았다. 김지현은 “학생들만큼이나 나도 너무나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다. 또 다시 이러한 기회가 생긴다면 꼭 참여하고 싶다”고 했다. 그렇다면 다음 재능기부에는 김지현만의 색다른 지도법을 만날 수 있을까. 김지현은 “솔직히 아직은 색다른 지도법을 생각하지 못했다. 그리 거창하지는 않아도 재능기부에 참가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최대한 쉽고, 재미있고, 다정하게 ‘맞춤 레슨’을 하고 싶다”며 활짝 웃었다. 그리고는 자신과 함께 한 꿈나무들에게 애정이 듬뿍 담긴 한 마디를 덧붙였다. “앞으로 꿈을 잃지 않고 희망을 품어 훌륭한 선수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김선형, 마음의 빛을 갖기 위해 시작한 봉사 활동이...

프로농구 서울 SK의 김선형은 농구계 ‘재능기부 아이콘’이다. 그는 10월 17일 ‘2017~2018 정관장 프로농구’ 정규리그 모비스와의 원정경기 도중 오른쪽 발목 외측인대 파열 및 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당해 현재는 코트를 떠난 상태다. 부상 이전까지는 빠듯한 시즌 일정을 소화하는 와중에도 시간을 쪼개 선행을 베푸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김선형의 재능기부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

작했다. 2015년 9월, 그는 대학시절 불법 스포츠도박을 한 사실이 드러나 농구팬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국민체육진흥법이 제정되기 전에 발생한 일이라, 검찰은 기소유예 판결을 내렸지만 KBL은 자숙의 의미에서 출전정지 20경기와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의 징계를 내렸다. 김선형은 징계기간동안 경기 용인시 양지바른에 위치한 장애인복지시설 ‘양지바른’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선수인생의 전환점이 된 순간이었다. 매 순간 진심을 다했다. 김선형은 “처음에는 내가 왜 봉사를 하러 왔는지 그곳 분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형식적인 것처럼 생각했다고 하더라. 하지만 진심을 다해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보였는지 선생님들이나 장애우 친구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고 했다.

봉사활동시간을 채운 뒤에도 꾸준히 ‘양지바른’을 방문해 장애우들과 시간을 보내고 청소도 하는 등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양지바른의 직원들은 김선형과 SK의 열성팬이 됐다. 2016~2017시즌 올스타전 최우수선수상(MVP) 수상으로 받은 상금으로 컴퓨터 8대를 구입해 양지바른에 기증했다. 매년 김장철에도 기꺼이 방문해 일손을 돕고 있다.

김선형의 선행은 선순환으로 이어져 SK 농구단 전원이 도배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도 했

다. SK농구단 관계자는 “(김)선형이의 지속적인 봉사활동이 이뤄지면서 이제는 SK스포츠단에서 아예 양지바른과 연계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눔의 기쁨을 안 김선형은 활동 폭을 넓혔다. 지난해 8월 연고지 서울의 남내 초·중·고 농구선수들 중 자신과 같은 등번호(5번)를 단 선수들을 초청하는 농구 클리닉 행사를 열었다. ‘모여라! No.5’ 행사였다.

김선형은 “일본의 한 축구선수가 연고지역 활성화를 위해 1년에 한 번씩 자신과 같은 등번호의 중고생들을 초청해 밥을 함께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무척 좋은 생각이더라. 구단에서 흔쾌히 도움을 줘서 행사를 열었다. 올해는 대표팀 일정으로 아쉽게 이 행사를 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5명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농구 클리닉을 한 뒤 서울 삼성동의 한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함께했다. 김선형은 “농구를 하면서 많은 것을 얻었다. 내가 받은 것을 조금이나마 나누고 농구발전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며 환하게 웃었다. 요즘 재할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김선형은 다시 코트에 서는 대로 봉사와 재능기부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고봉준 기자 shulout@donga.com



‘두뇌 스포츠’ 주산올림픽아드 열린다

26일 정부청사 세종컨벤션센터서 개최 내년 세계주니어 주산선수권 전초전 격

“대근육을 사용하지 않는 스포츠도 스포츠인가”라는 해묵은 논쟁이 떠오른다. 하지만 두뇌 스포츠가 정식 스포츠의 한 분야로 인정받은 지는 오래 되었다. “바둑이 팔 운동밖에 더 되냐”는 비아냥도 없지 않았지만 시대는 변했다. 바둑은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이었고

한국이 3개 종목 금메달을 휩쓸었다. 대한바둑협회는 대한체육회의 정가맹 단체이다.

두뇌스포츠 혹은 브레인스포츠는 이제 당당한 스포츠로 인정되는 것을 넘어 ‘중요한’ 스포츠로 자리매김을 했다. 체스와 바둑이 뿔고 e스포츠가 넓혀 놓은 길 위에 아스팔트를 입히려는 종목도 있다. 바로 주산이다. 컴퓨터가 대중화되기 전 단순 계산의 도구 정도로 여겨졌던 주산은 두뇌스포츠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조명을 받게 됐다. 우수 두뇌발달과 영재교육에 대한 효과

가 알려지면서 세계가 주산에 열광하고 있다. 주산교육은 2013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록되기도 했다. 그 결실 중 하나가 개최를 앞둔 한국주산올림픽아드이다. 한국주산연합회 주최로 두뇌발달능력을 겨루고 전국의 학력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열리는 대회이다. 신체적 능력을 겨루는 올림픽과 달리 두뇌능력을 겨루기에 두뇌올림픽아드라 불린다.

정식 대회명은 제9회 한국주산올림픽아드 KAMO. 26일 정부청사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대회는 각 지역대회 선발자들이 출전해 개인종합, 단체전, 번외경기로 진행된다. 개인종합 부분의 경우 연령·학년별로

나누어 대회를 치른다. 유아·미취학부가 아닌 초등학교 이상 부문은 주산과 암산으로 승패를 가리게 된다. 주산의 세부종목은 다시 승산, 계산, 가감산으로 나뉜다. 각 문항 수는 30문제, 제한시간은 2~3분이 주어진다.

이번 대회는 2018년 11월23~25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월드컵인 평창 ‘세계주니어 주산암산선수권대회’의 전초전이라는 성격도 지니고 있다. 이 대회는 국내 17개 광역시도 대표 및 국가별 대표선수들이 참여하게 된다. 한국주산연합회는 약 15개국에서 1500여 명의 브레인 선수 및 참관단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주산올림픽아드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주판을 이용해 계산문제를 풀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주산연합회

스포츠도사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경기 결과											
NBA (13일)					동부 콘퍼런스						
순위	대서양지구	승	패	순위	중부지구	승	패	순위	남동지구	승	패
1	보스턴	23	6	1	클리블랜드	20	8	1	워싱턴	14	13
2	토론토	17	8	2	밀워키	15	10	2	마이애미	13	13
3	필라델피아	14	13	3	인디애나	16	11	3	올랜도	11	17
3	뉴욕	14	13	4	디트로이트	14	13	4	살럿	10	16
5	브루클린	11	15	5	시카고	6	20	5	애틀랜타	6	21
서부 콘퍼런스											
순위	북서지구	승	패	순위	태평양지구	승	패	순위	남서지구	승	패
1	미네소타	16	12	1	골든스테이트	22	6	1	휴스턴	21	4
2	덴버	15	12	2	LAC	10	15	2	샌안토니오	19	9
3	포틀랜드	13	13	3	LAL	10	16	3	뉴올리언즈	14	14
4	유타	13	14	4	새크라멘토	9	18	4	멤피스	8	19
5	오클라호마	12	14	5	피닉스	9	20	5	댈러스	8	20
부문별 순위											
득점	총 평균	도움	총 평균	리바운드	총 평균						
① 아테네(일본) 716	28.8	① 제인스(미국) 252	9	① 드림랜드(미국) 408	15.1						
② 제인스(미국) 789	28.2	② 시몬(미국) 200	7.7	② 하워드(미국) 318	12.2						
③ 포르차기스(미국) 598	26	③ 로우(미국) 176	7	③ 영버드(미국) 245	11.1						
④ 올라드(미국) 638	24.5	④ 덴워드(미국) 165	6.6	④ 아테네(일본) 249	10.4						
⑤ 빌(미국) 647	24	⑤ 슈비(미국) 159	6.4	⑤ 러브(미국) 282	10.4						
서부 콘퍼런스											
득점	총 평균	도움	총 평균	리바운드	총 평균						
① 하든(미국) 801	32	① 웨스턴(미국) 254	9.8	① 조던(LAC) 360	14.4						
② 라리드(미국) 691	26.6	② 하든(미국) 237	9.5	② 커슨(미국) 350	12.5						
③ 카리(미국) 606	26.3	③ 그랜(미국) 183	7.3	③ 타운스(미국) 329	11.8						
④ 커슨(미국) 732	26.1	④ 티고(미국) 172	7.2	④ 카멜라(미국) 276	11						
⑤ 듀란트(미국) 591	25.7	⑤ 볼(LAL) 183	7	⑤ 데이비스(미국) 244	10.6						

경기결과									
●경기결과					●분데스리가 경기결과				
클리블랜드	123 - 114	애틀랜타	덴버	95 - 89	샌안토니오				
필라델피아	118 - 112 (연장)	미네소타	브루클린	103 - 98	워싱턴				
새크라멘토	99 - 92	피닉스	덴버	103 - 84	디트로이트				
뉴욕	113 - 109 (연장)	LAL							
해외축구 (13일)									
●프리미어리그 득점									
팀	경기수	승점	승	패	무	득점	팀	득점	
1 맨체스터시티	16	46	15	0	1	① 실라	리버풀	13	
2 맨체스터유나이티드	16	35	11	3	2	② 케인	토트넘	12	
3 첼시	17	35	11	4	2	③ 모리타	첼시	9	
4 버밍엄	17	31	9	4	4	④ 아계로	맨체스터시티	9	
5 리버풀	16	30	8	2	6	⑤ 스티븐	맨체스터시티	9	
6 아스널	16	29	9	5	2	⑥ 라차제트	아스널	8	
7 토트넘	16	28	8	4	4	⑦ 루니	에버턴	8	
8 레스터시티	16	23	6	5	5	⑧ 루카쿠	맨체스터유나이티드	8	
9 왓포드	17	22	6	7	4	⑨ 제수스	맨체스터시티	8	
10 에버턴	16	19	5	7	4	⑩ 버디	레스터시티	7	
11 사우샘프턴	16	18	4	6	6	⑪ 마살	맨체스터유나이티드	6	
12 허더스필드	17	18	5	9	3	⑫ 세인	맨체스터시티	6	
13 브라이튼	16	17	4	7	5	⑬ 아자르	첼시	5	
14 볼턴	16	16	4	8	4	⑭ 니아세	에버턴	5	
15 스토크 시티	17	16	4	9	4	⑮ 피르미누	리버풀	5	
16 뉴캐슬	16	15	4	9	3	⑯ 오스틴	사우샘프턴	5	
17 크리스탈 팰리스	17	14	3	9	5	⑰ 두쿠에	왓포드	5	
18 웨스트브롬위치	16	13	2	7	7	⑱ 리찰리슨	왓포드	5	
19 웨스트햄	16	13	3	9	4	⑳ 마레이	브라이튼	5	
20 스완지 시티	16	12	3	10	3	㉑ 지루	아스널	4	
●프리미어리그 경기결과									
번리	1 - 0	스토크 시티	크리스탈 팰리스	2 - 1	왓포드				
첼시	3 - 1	허더스필드							

경기 예고									
프로농구 (14일)					아마추어 경기결과 (13일)				
프랑크푸르트	2 - 1	함부르크	도르트문트	2 - 0	마인05				
프라이부르크	1 - 0	원렌글라트바흐	볼프스부르크	1 - 1	라이프치히				
NHHL (13일)									
●경기결과									
버펄로	3 - 2	오타와	뉴저지	5 - 1	LA				
필라델피아	4 - 2	토론토	워싱턴	5 - 2	콜로라도				
에드먼턴	7 - 2	콜럼버스	탬파베이	3 - 0	SI, 루이스				
미네소타	2 - 1	캘거리 (승부차)	시카고	3 - 2	콜로라도 (연장)				
캐롤라이나	3 - 2	베가스 (승부차)							
●핸드볼									
●제 23회 세계 여자 선수권대회(독일)					●제 23회 세계 여자 선수권대회(독일)				
●8강-스웨덴 26-23 덴마크, 프랑스 25-22 몬테네그로									
경기 예고									
프로농구 (14일)					아마추어 경기결과 (14일)				
●2017-2018 정관장 KBL					●2017-2018 신한은행 WKBL				
현대모비스	(울산동천)	삼성	우리은행	(아산이순신)	KDB생명				
오후7시, MBC스포츠플러스					오후7시, KBS스포츠				
SK	(잠실학생)	전자랜드	프로배구	(14일)					
오후7시, SBS스포츠					●도드람 2017-2018 V-리그 남자부				
					한국전력 (수원체육관) 현대캐피탈				
					오후7시, SBS스포츠				
					●도드람 2017-2018 V-리그 여자부				
					흥국생명 (인천계양) 현대건설				
					오후5시, KBS스포츠				
아마추어 경기예고 (14일)									
●배드민턴					●2017 BWF 배드민턴 슈퍼시리즈 파이널(아랍에미리트 두바이)				
					●2017 ITTF 월드컵 그랜드 파이널(카자흐스탄 아스타나)				
					●핸드볼				
					●제 23회 세계 여자 선수권대회(독일)				
					●라틴				
					●제 22회 아시아 U-19 청소년 럭비 선수권대회(필리핀 마닐라)				